

미래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제언* **

A Suggestion for Future Public Libraries

곽철완(Chul-Wan Kwak)***

< 목 차 >

- | | |
|----------------------|--------------------|
| I. 서론 | 1. 공공도서관의 증가 |
| II. 변화하는 사회 | 2.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
| 1. Paperless society | 3. 정보봉사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
| 2. 우리나라의 사회변화 | 4.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
| 3. 사회변화의 특징 | IV. 결론 |
| III. 미래를 위한 준비 | |

초 록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와 발맞추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변화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방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는 도서관이 문화공간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첫째, 정보접근점이 되어 주민에게 인터넷 정보탐색이 가능하도록 기기와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탐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문화를 창출하고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하며, 고품격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사회의 고품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중심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한다.

주제어 :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 북카페, 정보서비스, 인터넷 이용교육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or future public libraries in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requires to change the role of information service in public libraries, and the change of social circumstance requires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as cultural spaces. For the future public libraries, the suggestions are that public libraries provide an instruction for users in order to get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Next, public libraries provide comfortable, safe, luxury space in order to create regional culture so that users can get experience high culture, and use the space as cultural living zone.

Key Words :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role, book cafe, information service, Internet use instruct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500만 장서 달성 기념 학술대회(2004. 9. 15,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ckwak@kangnam.ac.kr)

· 접수일 : 2004. 8. 16 · 최초심사일 : 2004. 9. 1 · 최종심사일 : 2004. 9. 1

I. 서론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라 부른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시킨 여러 요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컴퓨터의 발명으로 이는 정보전달 매체와 통신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특히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미 20여년전 Lancaster는 컴퓨터의 중요한 역할을 예상하고 미래의 사회는 paperless society로 변화될 것이란 주장을 하였다¹⁾.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재는 Lancaster가 이야기하는 미래로 향하는 과정에 있으며 paperless society로 변화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사회가 종이 없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유사하다. 혹자는 공공도서관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오늘날의 공공도서관 형태가 아니고 다만 공공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 모든 답이 맞을 수 있다. 미래의 사회에서 종이는 오늘날의 정보전달매체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대신 다른 정보전달매체가 오늘날 종이의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공공도서관이 그대로 존속하던, 아니면 사라지던 오늘날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변화된다면, 공공도서관은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사회 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변화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변화하는 사회

1. Paperless society

사회의 변화는 공공도서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변화의 주역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등장으로 정보전달매체의 혁신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변화와도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있다. 이러한

1) F. W. Lancaster,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 *American Libraries*, Vol. 16, No. 8.(Aug. 1985), pp. 553-555.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변화의 핵심인 정보전달매체의 변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정보전달매체 변화의 중심은 디지털이다. 디지털 사회를 *paperless society*라 부르는데, 이는 정보전달매체로서 종이(인쇄매체)의 역할이 끝나고 디지털(전자매체)이 종이를 대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사회에서 초기의 정보전달은 음성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간은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혹은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문자가 발명된 후, 음성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 역할이 축소되었을 뿐이다. 문자의 발명은 정보전달의 시간적 제약을 제거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이의 발명은 문자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공간적 제약을 많이 제거하였다. 인쇄술의 발명은 문자를 손으로 기록하던 방법에서 한걸음 발전하여 과거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인쇄술이 발명되었다고 해서 손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서 인쇄매체는 더 이상 과거의 정보전달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다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에서 *paperless society*는 Lancaster가 초기에 주장한 것으로 학술잡지가 종이 형태에서 전자형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²⁾. 초기에는 학술잡지를 만드는데 단순히 컴퓨터가 사용되지만, 후에는 학술잡지의 저자와 독자가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되며, 내용도 멀티미디어로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멀티미디어를 통한 학술잡지의 저자와 독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시기가 되면 종이로 만든 학술잡지는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것은 도서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서관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저자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인데, 저자와 독자가 직접 상호작용 한다면 도서관 존재가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Lancaster가 단순히 변화단계를 주장하였다면, 전자매체의 경제성이 인쇄매체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Odlyzko는 크게 4가지 이유로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³⁾. 첫째, 전자출판⁴⁾은 인쇄출판과 비교할 때, 적은 비용으로 인쇄매체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전자매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장 디스크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전자매체에 저장하여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자들은 전자잡지를 이용비용을 받지 않고도 직접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전자잡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인쇄매체의 생산을 위한 출판사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넷째, 전자잡

2) *Ibid*

3) A. Odlyzko, "Tragic Loss or Good Riddance? The Impending Demise of Traditional Scholarly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Vol 42, No. 1(Jan. 1995), pp.71-122.

4) 여기서 전자출판이란 전자잡지, 단행본, 신문 등의 내용이 전자형태로 배포되는 것을 의미함.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3호)

지는 인쇄잡지보다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다양한 형태, 다른 논문이나 잡지에 하이퍼링크, 그리고 신속한 배포 등이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즉, 전자출판물이 종이인쇄물보다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종이 인쇄물을 대체할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Borgman은 Odlyzko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전자출판이 저렴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학술적 간행물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인쇄 비용은 9%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매체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았다. 컴퓨터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가격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동시에 정보기술의 발달이 이용자의 정보탐색을 쉽게 도와준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날 이용자의 WWW 사용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탐색을 제외하면, 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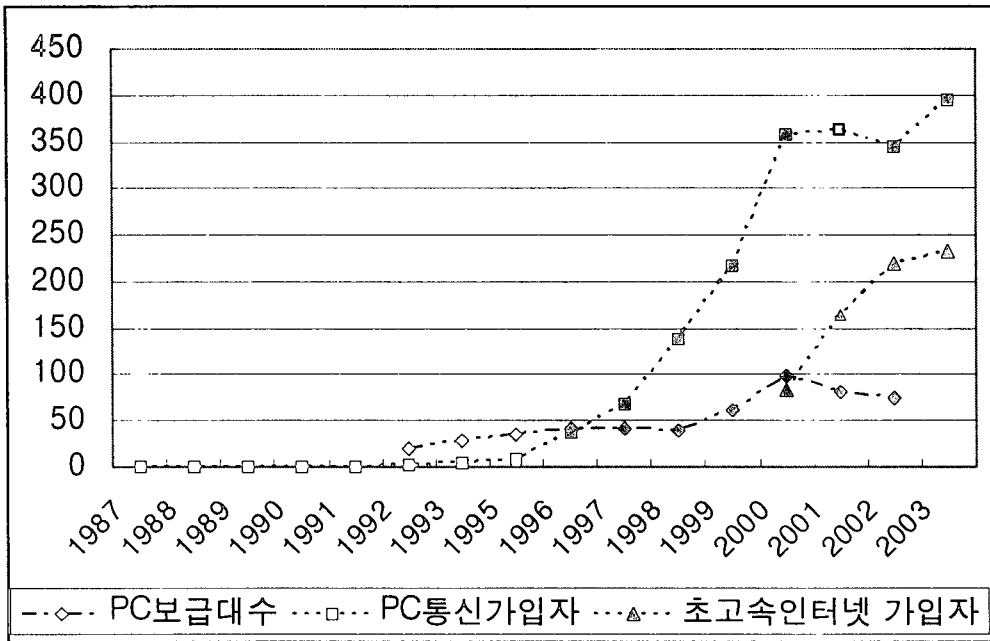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매체의 출현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급진적으로 종이의 정보전달매체 역할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며, 몇몇 학자들이 주장한 paperless society는 학술잡지 출판 영역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모른다. 컴퓨터와 디지털의 출현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변화

오늘날 우리나라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컴퓨터 보유수는 인구 1000명당 1992년 20.8대에서 2002년 75.7대로 급격히 증가하였다⁶⁾. 동시에, PC 통신 가입자 수는 1987년 인구 1000명당 0.01명에서 2003년 39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인구 1000명당 82.3명에서 2003년 233.3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PC통신 가입자 수는 1998년을 전후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2000년에 들어와서 초고속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며, 대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인터넷 이용 용도가 다양해지고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Christine Borgman, *From Gutenberg to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Networked World*(Cambridge : The MIT Press, 2000), pp.84-85.

6) 통계청, KOSIS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 [인용 2004. 8.1].



<그림 1> PC보급, PC통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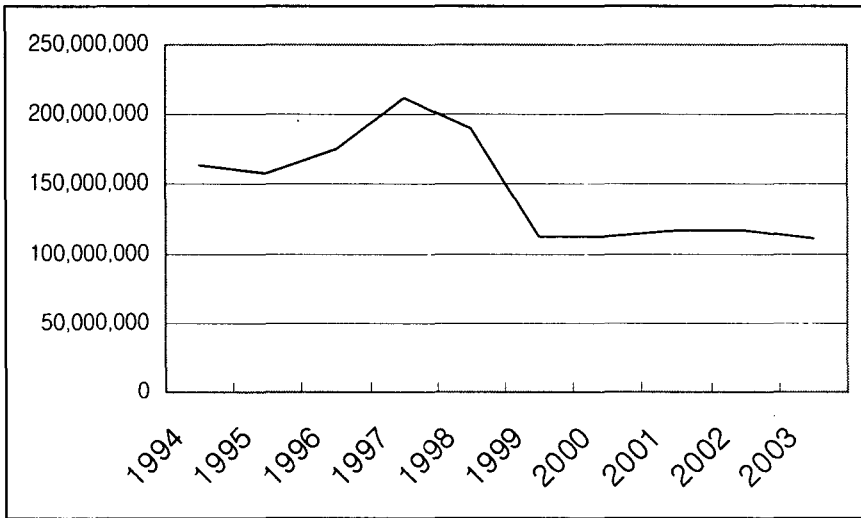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이용자가 사서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인터넷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이다. 웹 쇼핑몰의 등장과 인터넷 बैं킹 등은 우리의 경제 생활의 패턴도 바꾸어 놓았다. 대부분 백화점은 웹 쇼핑몰을 구축하여 고객들이 직접 백화점에 오지 않고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계 역시 변화를 맞이하였다. 대학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입생지원 원서를 접수하고, 수강신청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강의도 인터넷을 통해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전망한다.

출판계에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인쇄출판물의 발행부수는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양이 줄어들고 있다⁷⁾. 1998년 IMF 파동으로 발행부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추세는 면하였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출판계의 변화는 서점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1994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서점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 정보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서점의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대형서점들은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직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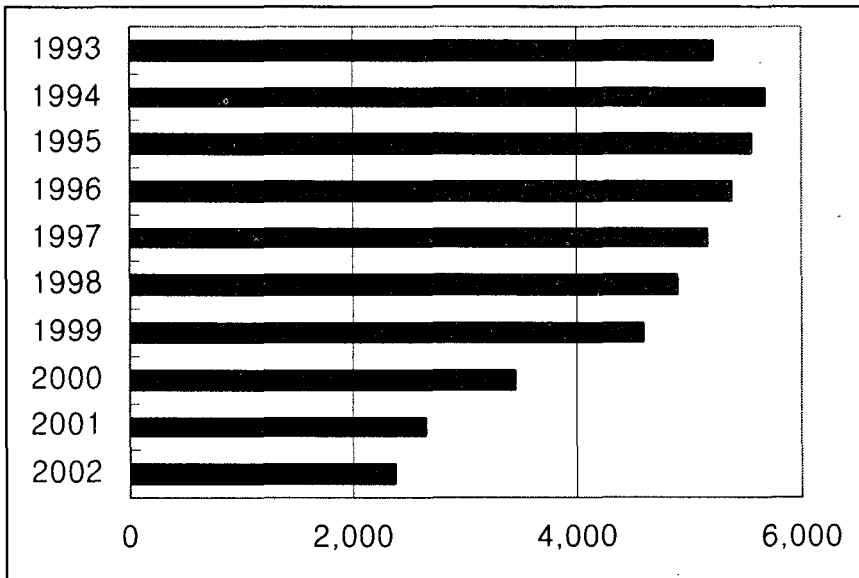
7)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출판통계, <<http://www.kpa21.or.kr/>> [인용 2004. 8. 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5권 제 3호)

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중 하나는 서점의 북카페다. 북카페는 고객들이 서점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가에 배열되어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서점이 도서관 기능까지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점차 고유의 활동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고 본다.



<그림 2> 지난 10년간 인쇄출판물의 발행부수 추이



<그림 3> 서점 수 변화 추이

사회의 변화는 주민의 여가활용 방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을 기준으로 2000년도의 TV시청 비율이 250% 증가하였으며, 스포츠 혹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0% 이상 증가하였다⁸⁾.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여가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잡일을 하는 사람이 84.2%로 가장 많았고, TV 시청, 사교관련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이 가족중심 혹은 개인 혼자서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주5일제 근무는 여가활용의 패턴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여가활용 방법

(단위 : %)

	감상, 관람	TV 시청	PC 관련	승부 놀이	창작적 취미오락	스포츠 여행	사교 관련	가족과 함께	수면 가사잡일	기타
1984	29.1	-	-	6.1	5.1	11.1	-	-	44.4	4.2
1990	5.3	24.5	-	5.7	5.8	12.3	-	-	44	2.4
1993	4.9	24.4	-	4.0	3.7	14	-	-	45.4	3.5
1996	8.0	41.2	-	3.4	3.4	29.5	-	-	29.5	3.3
2000	10.1	62.7	12.5	3.4	3.2	23.1	32.3	22.8	84.2	3.7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2000년 통계는 중복 응답임

3 사회변화의 특징

컴퓨터의 출현은 전자매체의 등장을 초래하였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전달의 통로를 만들게 되었고, 이 통로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화 확산은 전 세계의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정보의 즉각적인 입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세계의 확산을 초래하게 되었고, 사이버세계가 또 하나의 사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인간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크게 3가지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인간의 정보획득 기회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인간들은 과거의 주요 정보전달 수단인 인쇄매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소의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국제화는 인간이나 기관에게 국제적 관계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하게 일어나게 만들었다. 특히 핵가족화 현상이 첨가되면서 과거에 혈연관계 중심의 모임에서 비슷한 목적이

8) 통계청, 전계홈페이지.

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셋째, 여가시간에 있어서 인간 개개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직 사이버세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인터넷의 문제점으로 인간성과 사회성 상실로 연결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직접 만나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지식정보의 보고 역할과 교육·문화공간의 기능을 담당해온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Ⅲ. 미래를 위한 준비

1. 공공도서관의 증가

지난 20여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1986년 168개관의 공공도서관이 2003년에는 462관으로 증가하였고, 연간 도서관 이용자수도 1986년 17백만명에서 2003년 97백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도서관 장서의 연증가량도 1986년 35만여권에서 2003년 302만여권으로 증가하고, 연 이용책수도 1986년 979만여권에서 2003년 11,007만여권으로 증가하였다⁹⁾.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급속한 확산은 국가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확장은 사회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수는 1993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¹⁰⁾. 물론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¹¹⁾. 이런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 추측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증가할지 의문스럽다.

9) 상계홈페이지.

10) Michael Sullivan, "The Fragile Future of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ies*(Sept./Oct. 2003), pp. 303-308.

11) 일본도서관협회, <<http://wwwsoc.nii.ac.jp/jla/>> [인용 2004. 8. 15]. 통계에 의하면, 2000년 2,585개관, 2001년 2,681개관, 2002년 2,711개관, 2003년 2,760개관으로 나타남.

<표 2> 도서관 이용 현황

	공공도서관수(관)	이용자수(명)	장서증가량(권)	이용책수(권)
1986	168	17,948,820	356,402	9,796,429
1987	175	21,996,589	492,849	11,225,916
1988	175	22,261,587	510,237	11,883,428
1989	195	26,838,956	637,622	13,302,110
1990	231	25,007,833	721,152	13,910,672
1991	262	25,366,208	878,047	15,004,564
1992	273	26,726,018	821,314	17,244,341
1993	277	30,525,908	1,165,690	22,207,709
1994	279	34,638,074	1,357,336	28,049,488
1995	304	37,254,689	1,736,696	34,392,627
1996	304	40,175,412	2,142,814	36,464,627
1997	319	43,434,731	1,879,232	46,956,172
1998	330	53,301,386	1,980,168	54,760,410
1999	370	67,337,456	2,051,258	82,244,891
2000	400	80,913,864	2,343,069	98,662,310
2001	420	84,740,414	2,823,635	101,608,141
2002	437	87,876,706	3,027,545	108,727,305
2003	462	97,606,246	3,484,673	110,074,308

2.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여러 학자들이 미래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규섭은 21세기 공공도서관은 멀티미디어 중심의 전자매체를 소장하는 공간에서 문자중심의 매체를 소장하는 공간으로 복귀되어야 하고, 여가사회에 대처하여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원동력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¹²⁾. 이는 도서관이 여가활용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독서를 통하여 사회 발전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소장매체에 대해서 Hage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전달매체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도서관과 서점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¹³⁾.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평가하고, 알리고, 동시에 이 정보를 통해 교육하는 기관이라 하였다. 성공적인 공공도서관이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그곳을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2) 현규섭, "21세기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 제7집(2002, 10), pp.18-20.

13) Christine L. Hage, "Books, Bytes, Buildings, and Bodies : Public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Libraries*, Vol. 30, No. 1(Jan. 1999), pp.79-81.

고 주장하면서 사서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사서는 전자매체가 공공도서관의 장서에 포함되면서 교육자, 안내자, 기술자, 정보중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경제발전, 정보의 평등분배와 자아실현에 대한 역할로 구분한 학자도 있었다¹⁴⁾.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이 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식창출과 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FLA와 UNESCO는 ‘공공도서관 선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¹⁵⁾. 첫째, 유아기부터 독서습관을 부여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자율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주민 각자에게 창조력을 개발시키면 특히 청소년의 창조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문화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인식시키며, 공연예술과 같은 문화적 표현과 친밀해지고, 다른 나라와 문화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역사 보존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섯째, 지역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의 기업 및 단체의 정보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확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전문맹자 퇴치를 위해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주 기능인 정보봉사, 교육, 문화활동으로 요약되는 부분이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미래의 공공도서관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전자매체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도 소장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정보에 접근하는 기관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이다.

3. 정보봉사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여러 기능 중의 하나는 정보제공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정보제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보제공의 밑바탕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보전달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도서관의 기본이 되는 정보전달매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이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인쇄매체는 정보전달매체의 핵심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와 다른 종류의 정보전달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음반, 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의 비도서자료들이 인쇄매체의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인쇄매체의 역할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매체는 단순히 기록된 지식을 저장하는 매체란 의미보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포함한 의미이며 이를 인터넷이라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정보센터의 기능만을 담당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대체

14) 박인용,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2000, 3), pp.23-39.

15) 이진영, 공공도서관 운영론(서울 : 아세이문화사, 2001), p.40.

된다면, 주민들은 굳이 공공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확산은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1993년 이후 미국의 공공도서관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건수가 증가되지 않고 있다¹⁶⁾.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미국의 공공도서관 미래는 불확실할 수 있다.

과거 공공도서관은 이용의 공평성과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주민의 정보제공자로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었지만, 인터넷 등장으로 정보제공자의 기본적인 역할이 상실되었다.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도서관 관계자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는 신뢰성이 없으며, 상업적이며,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에 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달라는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서들은 도서관에 소장된 참고문헌을 이용하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⁷⁾. 과거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러한 생각이 옳았을 것이다. 다양한 참고자료를 소장한 기관은 도서관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얻는 많은 정보가 신뢰할 만하며 탐색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집단간의 시각적인 차이는 어쩌면 공공도서관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을 아주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너무 이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직원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연구를 위한 학술적인 정보를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간단한 질문일 뿐이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참고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비용을 참고자료 수집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담인력까지 배정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은 참고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서에게 참고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¹⁸⁾.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공공도서관이 사서들이 생각하는 정보센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발전하면서 이용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답을 제공하고 있었을 때,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참고봉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참고봉사활동에만 몰두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에 가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은 정보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정보센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도서관은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점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식자원을 찾는 것을 돕고, 그 자체가 지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16) Sullivan, *op. cit.*, p.303

17) *Ibid*, pp.304-305.

18) *Ibid*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Sullivan은 미국의 대형 서점의 변신에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주장하였다¹⁹⁾. 그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대형서점들은 호황을 맞이하였는데, 그 이유를 전통적인 서적판매에서 탈피하여, 북클럽, 예약도서 시스템, 독자지원서비스 등으로 발 빠르게 변신하여 고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의 신속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길고 신중한 자료선택과정을 거쳐서 수집된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자료 선택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선택을 위해 서평을 읽고, 장서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제의 장서를 구축하고, 소설과 비소설의 균형을 맞추며, 양질의 자료를 소장하여 후세에 전달한다는 중요한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 도서관에서 긴 과정을 거쳐 자료 구입 요청을 할 때면, 그 도서는 이미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이 도서 구입희망을 신청한 경우, 최소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그 도서를 읽을 수 있다. 비록 도서관에 그 도서가 신속하게 구입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복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이 그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대형서점은 출판사와 직접적인 거래로 도서가 출판되면 즉시 대형서점으로 보내져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일본의 몇몇 공공도서관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를 즉시 공공도서관에 보내 주민에게 이용시키고 있다²⁰⁾.

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공공도서관은 정보전달매체 변화와 발맞추어 정보봉사활동을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중심을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정보접근에 관한 기회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이용자에게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즉, 공공도서관은 정보봉사를 위한 접근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인쇄매체자료는 신속한 입수를 통하여 원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대형서점의 마케팅전략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보봉사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보전달매체의 소장 공간으로서의 도서관과 문화생활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그곳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인쇄매체에 저장된 기록된 지식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후손에 전달하였다. 인쇄매체를 소장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공간이 필요했고,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가야만 그곳에 소장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

19) *Ibid.*, p.305.

20) 필자가 2004년 2월 일본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확인한 내용으로 요코하마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음.

었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비디오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쇄매체가 전자매체로 바뀐다면 인쇄매체를 소장했던 곳과 같은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자매체는 한 대의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혹은 여러 컴퓨터에 분산하여 저장한 후, 이용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이란 건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Idea Store²¹⁾라는 변화된 개념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최초의 Idea Store가 개관한 이래 2004년 7월에 두 번째 Idea Store를 개관하였고, 2005년 말에 3번째 Idea Store가 개관될 예정이다. Idea Store의 기본 개념은 idea란 이미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호감을 주며,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성인교육, 직업훈련, 회의장소, 예술 및 문화행사 등이 이루어진다. 이용자들은 Idea Store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복합문화공간이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핀란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핀란드의 Helsinki 중앙도서관은 6가지의 중심테마를 가지고 미래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건물을 구상하고 있다²²⁾.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공간을 아주 안락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민들의 학습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컨텐츠의 최신성을 위해 시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소장하며,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위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의 Richmond 공공도서관의 Ironwood 분관도 도서관계의 주목을 받는 도서관이다²³⁾. Ironwood 분관은 개관시간이 주중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며, 모든 연령층이 함께 독서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실 개념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이용의 Digital Kids 공간과 구연동화공간을 갖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주민을 위해 하이테크 지도 및 훈련 컴퓨터센터를 통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학 교육은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중의 하나인 문맹퇴치를 위한 수단이다.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을 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학 교육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외국어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도서관 정체성 문제와도 관련되며 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 기능의 왜곡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http://www.ideastore.co.uk> [cited 2004. 8. 5].

22) Future Library Forum home page, <<http://www.aula.cc/projects/futurelibrary/newlibrary.html>> [cited 2004. 8.10].

23) Richmond Public Library home page, <http://www.yourlibrary.ca/aboutus_sub.cfm?lev1=5> [cited 2004. 8.10].

이와 같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공공도서관 공간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²⁴⁾. 만약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서점이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점의 휴식 공간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문화생활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오늘날 사회의 특징과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 앞서 여러 학자들과 여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경향은 개인의 거실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과거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족간 혹은 지역주민들간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가족, 지역주민, 장애인들 모두가 함께 모여 대화하며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IV. 결론

변화되는 사회에서 공공도서관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추세에서 관련 기관, 특히 서점의 변화는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 공공도서관이 존재할지 아닐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이 미래에 대비해, 해야 할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정보접근점이 되어야 한다.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주민에게 인터넷 정보탐색이 가능하도록 기기와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정보탐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에서 전자매체의 소장 개념이 아니라 접근 개념이 재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문화를 창출하고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하며, 고품격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사회의 고품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될 때, 공공도서관은 미래에도 사회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중심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4) Hage, *op. cit.*, p.80.